

## 과학기술의 발전은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김 동 건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자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도 최신과학기술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더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그것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사상적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은 수령, 당, 인민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만 지닐수 있는것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치사상적위력 그자체에 대하여 론할수 없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모순, 호상견제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사회는 단결과 협조가 아니라 대립과 분렬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압도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없고 가질수도 없는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는데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및 도덕의리적인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켜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자면 인민대중이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지녀야 한다.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은 인민대중이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원천의 하나이다.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은 우리 수령제일주의, 우리 사상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높아야 수령을 진심으로 따르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살며 투쟁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수록, 사회주의가 실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은 그만큼 높아진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자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것을 발양시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문제는 그 제도자체와만 관련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모든 분야의 발전수준과 련관되어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아무리 우월한 사회라고 하여도 사회의 모든 분야를 끊임없이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나라의 군력이 비상히 강화된다.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자면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과 함께 군사적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은 힘의 대결인것만큼 군사적위력을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위력 그자체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군대가 침략자와 침략의 본거지들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현대적인 무기로 정밀타격할수 있는 능력만 든든히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자면 국방공업의 자립성과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건설하는것은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의 질적 및 량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방공업의 자립성과 현대화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국방분야에서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자고 해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자체의 힘으로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자고 해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수공장들에서 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고 설비리용률과 원료, 자재의 실수률을 높일뿐아니라 군수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한다. 또한 군수공업부문에서 생산과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고 생산조직사업과 장악통제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현대전에 필요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의 량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물질문화생활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지식경제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자 사회의 물질문화생활의 발전수준이다. 물론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느 사회에서나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된다는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적부가 늘어난다고 해도 인민대중이 기아와 빈궁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썩어빠진 정신문화생활로 인한 패륜패덕과 사회악의 범람을 막아낼수 없다.

지금 부르조아지들과 그 대변자들이 자본주의의 《물질적번영》과 《문명》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물질문화생활이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참답게 이바지한다.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당과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과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창조하고 향유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는데 사회주의물질문화생활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이제 우리가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준다면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게 된다.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자고 해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과 체육을 발전시키자고 해도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한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주의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켜 우리 인민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나가는데서 사상교양이 경시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교양이다.

사상을 홀시하고 사상교양을 외면하면 사람들속에서 자주의식이 마비되고 일심단결이 파괴되게 되며 종당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문제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는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높이 발휘되면 그만큼 사상교양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과학기술이 진퇴상태에 빠지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제대로 발양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속에서 민족허무주의와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사대주의와 같은 유해로운 사상독소가 자라날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시할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기적적성과들은 조선의 국력을 과시한 력사적사변이었으며 주체적인 과학기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대한 일대 시위였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이런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이 우리 인민에게 준 정신적충격은 매우 컸다.

지금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넘쳐있으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 슬기와 재능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현실은 우리 인민이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지니도록 하는데서 사상교양과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첨단과학기술을 악용한 부르쥬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는데서 주되는 장애는 부르쥬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다. 부르쥬아사상문화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순수 《개인을 위한 개인》, 자기 리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로, 동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반동적인 사상문화이다.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는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기 위한 악랄한 반동공세이다. 신념은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기둥이고 지렛점이다. 신념으로 건설되는것이 사회주의사회이고 신념에 의하여 지켜지는것이 사회주의보루이다. 머리에 자본주의의 쉬가 쏘면 신념을 버리게 되고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당하게 된다.

부르조아사상문화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 자본주의에 대한 찬미로 일관되어있다. 그것이 내돌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바람에 춤을 추면 당도 사회주의도 모르는 신념이 없는 속물로 되고만다. 이것은 부르조아사상문화가 침습하는 곳에서는 레외없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독버섯처럼 자라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는 사회주의사회의 통일단결을 해치기 위한 교활한 수단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통일단결은 생명이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는데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불패성이 있다. 사상적일색화, 조직적공고화에 균열이 생기면 사회주의는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부르조아사상문화의 대변자들은 력사적으로 사회주의의 정치체제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여왔다. 사회주의를 《전체주의》이니, 《병영식》이니, 《행정명령식》이니 하면서 악랄하게 헐뜯었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다당제》와 《다원주의》를 고취하였다.

부르조아사상문화대변자들의 이러한 꾀변에 속아넘어간다면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사상의 자유》를 제창하게 되며 반사회주의길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당도 정권도 군대도 분열시키고 민족도 사회도 갈기갈기 헤쳐놓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력사가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면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게 벌리는것과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부르조아사상문화의 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3중으로 든든히 치면서도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해나갈수 있다.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최신과학기술수단들을 리용하여 교활한 방법으로 감행하고있다. 현대적기술을 리용한 반동적인 모략선전수단들의 위험성은 이미 이라크전쟁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 나라에 대한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현대과학기술을 악용하여 더욱더 교활하게 감행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발전된 과학기술로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르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분야들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되는데 따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 일심단결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으며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이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 정치사상적위력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것이다.

실마리어 과학기술, 정치사상적위력